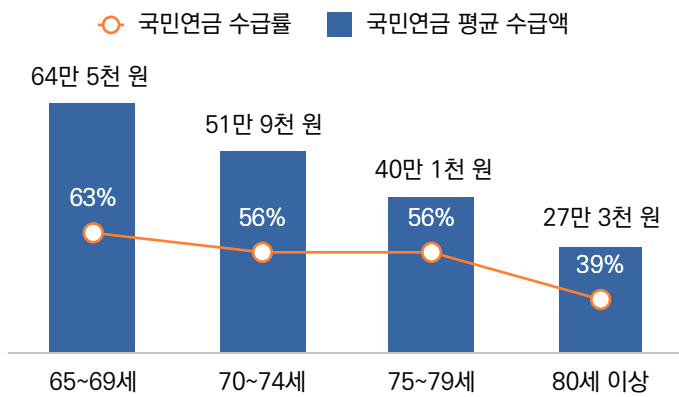




[고령층(65세 이상)의 국민연금 수급 실태와 교회 헌금] 나이를수록 국민연금 ‘수급률과 수급액 감소’ 뚜렷!

- 65세 이상 고령층 중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? 이는 은퇴 교인들의 헌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본다.
- 65세 이상 각 연령별로 보면 ‘65~69세’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63%였는데, ‘70~79세’ 56%, ‘80세 이상’은 39%로 떨어진다.
- 평균 수급액 역시 ‘65~69세’ 64만 5천 원에서 ‘80세 이상’은 27만 3천 원으로 크게 줄어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률과 평균 수급액이 함께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.

[그림]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 현황 (65세 이상, 2025.07.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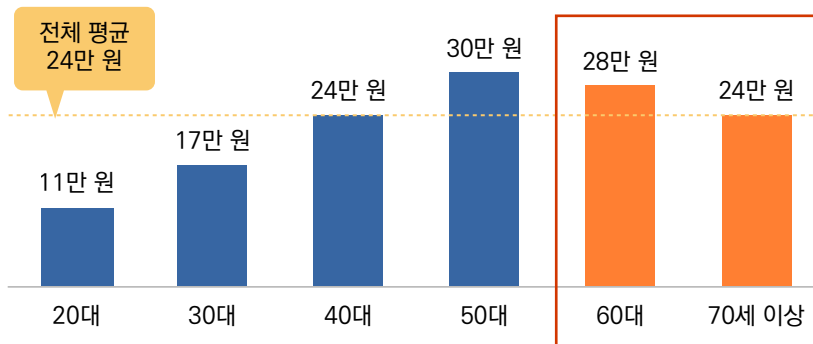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국민연금공단,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 2025년 7월 기준 (<https://www.nps.or.kr/pnsinfo/statistics/getOHAFO119M0.do>)

※출처 : 행정안전부, 주민등록 인구통계(연령별 인구현황), 2025년 7월 기준 (<https://jumin.mois.go.kr/#>)

70세 이상 평균 헌금액, 40대 성도와 동일 수준!

- 이번에는 교인들의 연령별 월 평균 헌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. 한국교회 트렌드 2026(헌금 파트)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도의 월 평균 헌금액은 24만 원으로 조사됐다.
- 이를 연령별로 보면 ‘50대’가 3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, 이어 ‘60대’(28만 원), 40대와 70세 이상’이 각 24만 원으로 공동 3위였다. 70세 이상의 평균 헌금액이 40대와 동일 수준인 점이 주목된다.

[그림] 연령별 월 평균 헌금액 (교회 출석 기독교인)
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/희망친구 기아대책, 한국교회 트렌드 2026(헌금 조사), 2025.09. (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05.15.~05.22.)